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로 꽃피우다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 등 17일 등재 결정 전북, 국내 두 번째 많은 세계유산 보유... 향후 가치 조명·활용사업 지원 강화 기대

전북도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지난 17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알 파이살리(Al-Faisaliah)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고 밝혔다. 등재일은 위원회가 폐막하는 2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을 비롯하여 전북도 등 10개 도·시·군(전북, 경북, 경남, 남원, 고령, 김해, 함안, 창녕, 고성, 함천)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면담과 지지교섭 활동을 벌이는 등 등재 결정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도는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 3명의 참기반을 구성해 등재 결정 현장에서 가야고분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홍보활동에 주력했다. 전북의 가야문화유산이 국내에서 주

목받이까지는 오랜 세월의 인내가 있었다. 가야사의 불모지지만 알려졌던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문화의 실체를 파악하기까지는 1982년 고(故) 전영래 교수의 월산리고분군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1987년 전북대박물관에서 시행한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북 가야사 연구자들의 집념과 파나는 연구성과가 있었다.

전북도는 학계 및 시민과 함께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가야문화유산을 새롭게 찾아내고, 조사·연구하고, 그 가치를 밝히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이제는 세계인에게 전북 가야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앞으로 함께 누리고 보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거뒀다.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한국은 1985년 석굴암·불국사가 등재된 이후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

하게 됐다. 특히 전북은 17개 시도에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계유산 보유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전북 세계유산은 고창의 고인돌유적(2000), 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정읍의 무성서원(2019), 고창의 갯벌(2021), 남원 가야고분군(2023) 등 5건에 이른다. 고인돌문화, 백제문화, 가야문화, 조선의 유교문화 뿐만 아니라 자연유산인 갯벌에 이르기까지 세계인이 주목하게 될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다.

이번에 함께 등재된 7개의 고분군 중 영남 지역의 고분군들이 주변 정비, 전시관 건립 등 보수정비를 거의 완료된 것에 비해 남원 고분군은 현재 주변 정비사업이 시작됐으며, 홍보관 건립을 앞두고 있다. 남원 가야고분군은 나무숲과 함께 1500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잘 보존돼 '진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처럼,

다른 지역의 고분군과 차별화되는 활용전략을 마련할 때이다.

전북도는 세계유산이 갖는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통한 지역관광산업을 비롯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북 가야고분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북의 미래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세계유산에 포함되지 못한 장수 등촌리고분군, 삼봉리고분군 등 장수지역의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에 확장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 고분군은 백두대간 품속에 자리해 지리적 환경이 탁월하며, 대규모 철산 개발과 사물밭갈의 교역망을 장악했던 강력한 가야 정치체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완전성과 진정성을 보장하는 등 확장등재 추진절차에 돌입한다.

이외에도 전북동부지역의 고대 제철 유적을 기반으로 한 국립 철 박물관 건립, 현재까지 어느 지역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가야 문화유적을 테마로 한 가야 문화 에코뮤지엄 조성,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루리타지(Ruritage)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세계유산의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남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해주신 문화재청,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전북 가야사 연구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자치단체로서 세계인과 함께 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활용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등 가야고분군이 지난 17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 알 파이살리에서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 결정됨에 따라 전북도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수입 수산물 원산지 단속 실시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곳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등 단속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가 지난날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18일부터 22일까지 도 수산정책과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대상 품목은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쌈이(멍게)로 해양수산물 제공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단속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께서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게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료품, 청소품,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주시길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도,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 조성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대

전북도가 고행사랑기부 분위기 조성 과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과 '단체품 홍보관'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도는 청사 1층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에 180만 전북도민의 고행사랑 및 전북발전 염원 의미를 담아 기부자 명예 180개를 설치하고, 고행사랑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6개 출향단체와 500만원 최고액기부자 12명, 100만 원 이상 2억 원 기부자 28명을 포함해 총 35명의 고행사랑기부자 이름을 새겼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대표 누리집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https://znkr.kr/dsro>)은 전북발전에 관심을 가져 준 모든 기부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10만원 이상 기부자까지 등재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앞으로도 기부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합



전북도가 고행사랑기부 분위기 조성 과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전북사랑기부 명예의 전당'과 '단체품 홍보관'을 조성했다

계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쪽에는 전라북도 대표 단체 품을 50여 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체품 홍보관'을 설치했으며 청사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도 소개와 더불어 기부 혜택을 알려 도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활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추석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 운영

전화·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전북도는 민중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18일~10월 13일 운영한다.

지난 장마철 집중 폭우로 농축산물 피해로 인해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 더해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대면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

자상거래, 사회관계망(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등과 관련된 피해 및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숙박, 여행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전라북도 소비자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맹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를 접수·처리하기로 했다.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광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한다.

/김재훈 기자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

전북도가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난날 25일 최종 확정, 9월 현재 지급중에 있으며 추석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21천 농어가가 신청해 자격검증 등을 통해 11만7,000 농어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했

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701억원이 타도에서 사용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됨으로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지역경제 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 해 10만 6,000 농어가에 약 638억원, 2021년 11만 2,000 농어가에 약 673억원, 2022년 11만 5,000 농어가에 약 689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김재훈 기자

'야외활동 시 진드기 물림 주의하세요'

도, 쯤쯤가무시증 등 주의 당부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드기매개감염병(쯤쯤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쯤쯤가무시증의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유행 발생은 초가을(9월 말~10월 초)에 증가하기 시작하고, 늦가을(10월 말~11월 초)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털진드기와 접촉할 확

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라, 쯤쯤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벌초·성묘 등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킬 것을 강조했다.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10일 이내 발열·발진, 소화기증상이 나타나면 쯤쯤가무시증 및 SFTS를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